

[현금계좌 : 신한은행 301-01-916707 안동교회]

* 보내는분은 필히 성명+현금종류를 표기해주세요

예) 홍길동주정, 홍길동감사, 홍길동십일조, 홍길동해외선교...

<십일조헌금>

고병길 권혜순 김문수 김방자 노기방 박경혜 박노향 박정희 박지운 배호근 서영희 신영식
유정희 이 성 이정섭 이주영A 장경녀 장은라 진주영 채병원 최희욱 한 민 무명1

<주정헌금>

강석인 곽홍섭 권은경 김경선 김경아 김길섭 김한숙 김문수 김미래 김미선 김봉래 김세운
김연선 김영실 김영이 김영자 김영화B 김은주 김재준 김정단 김종만 김중순 김주연 김해숙
김행미 김해자B 김화자 노기방 마명규 문윤희 박노향 박선숙 박성준 박진형 방 민 백병기
변경인 서영희 손선경 송홍식 신영식 양은선 오순원 오현숙 원명자 유명옥 유양재 유왕재
유해정 유화명 이광섭 이나영 이선자 이 성 이성희 이연화 이영수 이영은 이예나 이정숙
이호창 임동희 임종일 임재호 임현우 전병권 정옥자 정주원A 정학재 정해숙 재림희선 조명자
조민숙 조영희 조정애 차은미 최경일 최영훈 최예순 최재왕 함영림 허동각 홍동근 황경선
황금석 황영태 황재금

<주일헌금>

김영미 백종관 우순형 이선옥 이형섭 무명1

<감사헌금>

강기석(생일) 김광은 김미정 김현수(은퇴) 노 민 박정희(복춘65+스마트경로당 중심)
변경인 이정숙 이지훈 이진영 임예나 임예준 임재호 조정애(2026년 주님은혜로 삶)
화수목작업실 무명1

<목적헌금>

(아동부전도사지원) 송홍식

<선교헌금>

(북방) 김방자 이주영A 이정섭
(해외) 김종만 오군자 이주영A

<신년헌금>

강기석 고병길 고송희 곽원섭 곽태성 곽홍섭 권혜순 길석현 김도형 김한숙 김윤성 김재근
김해숙 김해자B 김희수 김희진 마명규 박경혜 박상현B 박선숙 방승주 백병기 백종관 송호운
유명옥 유복근 유왕재 유준자 을지자르갈 이선자 이영수 이영은 이용우 이주영A 이호중 재림희선
조민숙 최요희 한행자 함영림 홍동근 무명1

*1월 안동교회 중보기도

- 새해에는 더욱 믿음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은혜로 주어진 천국시민의 특권을 누리며 예수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 피택된 항존직분자들이 훈련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되고, 성령의 마음과 영적 은사를 더해 주셔서, 앞으로 맡게 될 귀한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 투병 중에 있는 안동 가족들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소망으로 오늘을 견뎌내게 하시고, 속히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소서.

✠ 예 배 시 간 안 내 ✠

예 배	시 간	장 소	담당교역자	
주일예배	영아유치부	오전 11시	영아유치부실	김은주
	아동부	오전 11시	아동부실	김영광
	중고등부	오전 11시	중고등부실	장희찬
	1부	오전 9시	예배당	황영태
	2부	오전 11시	예배당	황영태
	3부(청년)	오후 1시 30분	예배당	김석준
	수요기도회	오후 7시	예배당	황영태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시30분	예배당	황영태	

원로목사	유경재	2부찬양대지휘	김성미
담임목사	황영태	1부오르가니스트	민동림
부목사	김경아 마명규	2부오르가니스트	김연주
파송선교사	을지자르갈(몽골)	간사	임동희
협력선교사	이영철 오영환	관리	김기복
전도사	김태진	어린이집원장	김은주
교육전도사	김은주 장희찬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2 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동교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안동교회 1909년 3월 첫주일창립

제4023호
2026. 1. 11.
주님의 수세주일

2026년도 주제 :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 II
창조세계 보전의 해

무거운 짐을 진 당신에게 건네는 초대

마태복음 11:28-30

철학자 한병철 교수는 현대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노동 때문만이 아니라,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실존적인 압박 때문에 영혼이 탈진해 있습니다. 성과와 인정이라는 우상은 우리에게 "멈추면 도태된다"고 끊임없이 채찍질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더 노력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짐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으신 주님이 내 짐을 대신 지시는 '은혜의 멍에'입니다. 복음은 내가 성취해서 얻어내는 보상이 아니라, 이미 주신 사랑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입니다. 우리를 옴아매는 증명의 굴레를 벗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십시오.

소그룹 나눔 질문

1. [현실 직시] 최근 당신을 가장 지치게 하거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짐'은 무엇입니까? (업무, 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 남들의 시선 등) 혹시 그 짐 뒤에 "나를 입증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나눠봅시다.
2. [복음 적용] 세상은 "내가 노력한 만큼 쉼을 얻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으니 와서 쉬라"고 하십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완전히 믿는다면, 내일의 삶(직장, 가정)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서울시 종로구 윤보선길 57 (안국동)
57, Yunboseon-gil, Jongno-gu, Seoul, Korea
TEL. (02) 733-3395 FAX. (02) 733-3398
E-mail. office@andong-ch.org http://www.andong-ch.org

